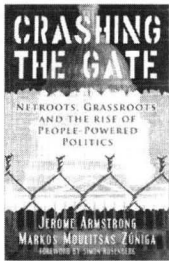


블로거들이 몰려온다, 문을 열어라!

강주현 | 번역가

English



원 제_《문을 부셔라: 네트루트, 풀뿌리, 민중 중심정치의 태동Crashing the Gate: Netroots, Grassroots, and the Rise of People-Powered Politics》
저 자_ 제롬 암스트롱Jerome Armstrong · 마르코스 주니가Markos Moulitsas Zuniga
출판사_ Chelsea Green Publishing Company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가 재개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이제 식상한 단어가 되었다. 지방 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이라고! 한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일종의 개인 홈페이지라 할 수 있는 블로그가 생기면서 민주주의의 풀뿌리는 제도가 아니라 개인으로 되돌아갔고, 그와 더불어 '네트루트 Netroot' 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미국 정치계에 블로그를 도입한 개척자 제롬 암스트롱과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미국 최고의 정치 블로그를 운영하는 마르코스 주니가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이른바 민중 민주주의, 즉 국민이 권력을 갖는 정치체제의 실현이 가능할 수 있다는 흥미진진한 책 《문을 부셔라 : 네트루트, 풀뿌리, 민중중심정치의 태동》을 발표했다.

이 책은 2006년을 중심으로 지난 15년간의 미국 정치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미국의 정치상황을 해부하면서, '신보수주의자'를 뜻하던 '네오콘'이 기독교 근본주의적 색채를 띠면서 '테오콘'으로 변해버렸다고 한탄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1장은 지난 호에 소개한 지미 카터의 《미국의 도덕적 위기》를 요약해놓은 듯한 느낌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일까? 두 저자는 지금 민주당의 무력증을 신랄하게 공격하면서 민주당은 정당도 아니라고, 그저 유권자 집단이라고 쏘아붙인다. 공화당원은 공화당을 비판하면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일체감을 강조하고 자책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민주당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계를 발가벗기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똑같이 부패하고 부정직한 정치집단이다. 하지만 권력이 아직 그들에게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두 저자는 그 해결책을 '네트루트'에서 찾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블로거들이고, 그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방문하는 국민이다. 블로그는 민중 중심의 정치를 향한 주춧돌이다.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가 태동하고

있다. 부자, 부정직한 사람, 부패한 사람이 쥐락펴락하는 정치가 아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새로운 정치가 태동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그런 정치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런 정치가 어떻게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줄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시민전쟁이 필요한 때다. 물론 옛날처럼 총칼을 들고 권력자에게 항거하는 싸움은 아니다. 테크놀로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준 온라인의 네트루트가 중심이 된 새로운 전쟁이다. 이런 전쟁을 통해 공화당을 권력에서 밀어내고, 민주당을 개혁시켜야 한다. 지금의 정치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 블로거들은 칼을 휘두르듯이 키보드를 두드려야 한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가슴에서 오는 열정이다. 그들에게 여론 조사를 기웃대지 말라는 것이다. 목소리가 없는 블로거들, 그러나 진정한 풀뿌리들이 이렇게 지혜를 나눌 때 뜨거운 가슴을 지닌 정치인을 선택할 것이고, 민주주의는 다시 활짝 꽃피울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먼저 그들은 당신을 무시한다. 그 다음엔 당신을 비웃는다. 그 후엔 당신과 싸우려든다. 그러나 결국 당신이 승리한다."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그들이란 권력을 쥔 정치인들이다. 지금 우리 정치는 어디까지 왔을까? **▶▶▶**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재일한국인 다룬 세편의 이야기

김훈아 | 번역가

2004년 4월 사기사와 메구무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서른 다섯이란 너무도 젊은 나이였기에 불의의 사고가 아니었나 했으나, 며칠 후 사인이 자살로 밝혀졌다. “문제는 아무 것도 없었다. 순간적인 감정의 혼란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는 평소 가까웠던 편집자의 말처럼, 그녀의 밝고 씩씩했던 평소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자살 전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 그녀가 남긴 독자들과의 대화 기록은 더욱 자살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게 했다.

《뷰티풀 네임》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여 만에 출간된 유작집이다. 여기에는 재일한국인의 이름을 주제로 생전에 구상된 세 편의 이야기가 수록될 예정이었다. 〈안경너머의 하늘〉과 〈고향의 봄〉은 이미 문예지에 발표가 되었으나, 마지막 작품인 〈병키치/춘코〉는 미완인 채 평소 그녀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

1987년 열여덟 살에 〈강변길〉이란 작품으로 문학계^{文學界}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그녀는 짧은 생애동안 30편 이상의 소설과 수필집, 번역서 등을 내며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세 차례나 아쿠타가와상 후보에 올랐고, 《너는 이 나라가 좋으나》《소년들의 끝나지 않은 밤》 등 여섯 편이 이미 한국에서도 소개되어 낯선 작가라고는 할 수 없다.

스스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떤 깊은 감회를 품고 있음”(《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저자의 말, 문학사상사)을 이야기한 저자의 조모는 한국인이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녀를 이양지나 유미리와 같은 재일한국인 작가로 명명하는 경향이 있다. 등단 후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음을 알게 된 작가는 이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서울에서 유학, 그때의 경험을 작품으로 엮기도 했다.

그런 그녀가 그런 재일한국인의 모습은 기존의

재일한국인 문학과는 달리 무거운 테마를 특유의 필치로 산뜻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산뜻함은 재일교포 문학에 이는 새로운 바람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벼움으로 해석되었으며, 재일한국인으로서 겪어야 했던 체험을 하지 못한 그녀의 작품을 재일교포 문학이라는 범주 안에 넣어 해석하는 것을 우려하는 경향도 있다.

현재 재일한국인 젊은이가 일본인과 결혼하는 확률은 80퍼센트가 넘는다고 한다. 이는 일본사회 안에서 그려지던 재일한국인의 모습이 점점 일본 가정 내에서의 모습으로 그려지게 될 것이며, 그녀처럼 양국의 피를 이은 2세와 3세들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시기에 와 있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재일한국인 사회 구성원들의 변화와 그들의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논의나 인식은 이러한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재일한국인의 다양한 모습을 새로운 필치로 그려온 작가의 갑작스런 죽음이 더욱 안타까운 이유다. **추천**

Japanese



원 제 《뷰티풀 네임 뷰ティフルネーム》
저 자 사기사와 메구무
출판사 신조사 新潮社

코카콜라 드림의 실체와 허상

조정훈 | 번역가

French



원 제_《코카콜라, 금지된 수사 *Coca-Cola. L'enquête interdite*》
저 자_ 윌리엄 레이몽 William Reymond
출판사_ 플라마리옹 Flammarion

우리 모두는 코카콜라가 만들어낸 환상을 먹고 자라왔다. 오늘날 아이들이 산타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믿는, 빨간 옷에 하얀 수염의 뚱뚱한 산타가 실은 1920년대 코카콜라 광고 모델의 이미지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코카콜라는 아메리카 자본주의의 꿈과 환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었다. 탄산음료라는 단 하나의 상품을 가지고 코카콜라는 어느 정복자도 이루지 못했던 세계정복의 꿈을 이루어냈다. 세계 인구의 96퍼센트가 코카콜라를 알고 있으며, 유엔 가입국보다 많은 200여 개 국가에 코카콜라가 공급되고 있다. 세계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의 양은 1초당 7,500병. 하루 6억5,000병이 세계 시민들의 목마른 식도를 적셔주고 있다.

코카콜라 제국의 화려한 성공신화의 무대에 가려진 어두운 비밀을 폭로한 책 한 권이 프랑스에서 출판되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인 저널리스트 윌리엄 레이몽이 쓴 《코카콜라, 금지된 수사》라는 책. 윌리엄 레이몽은 존 F. 케네디 암살사건의 비밀이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치 배후 등 미스터리와 스캔들을 파헤쳐 베스트셀러 작가의 명성을 얻은 이른바 '탐사 전문 기자'다. 이번에 그는 음료 하나로 세계를 정복한 코카콜라 제국의 거짓 신화와 어둠의 역사를 낱알이 드러낸다.

그 이름이 이야기해 주듯 코카콜라는 처음에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코카인을 성분으로 만든 약용음료였다. 코카인은 마약성분의 중독성이 강하고 1그램만 복용하면 치사량에 이르는 독극물이다. 코카인의 사용은 1902년 금지되었지만 이미 20년 동안 코카콜라는 코카인이 든 음료를 팔아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음료로 성장시킨 것은 전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정부는 전장 곳곳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 젊은이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코카콜라를 싼 값에 무제한 공급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코카콜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로 널리 퍼져갔다. 그러나 지은이는 이런 엄청난 특혜를 얻으면서도 당시 코카콜라가 나치와 더러운 거래를 했다고 폭로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코카콜라는 나치 점령지역에서 모든 판매행위를 중단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39년만 해도 독일은 한 해 1억병의 판매고를 올리는, 코카콜라의 세계 두 번째 시장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시장을 지키기 위해 영국의 해상 봉쇄에 반대했다. 코카콜라는 자신의 상품을 계속 팔기 위해 원료인 시럽을 루마니아의 콘스탄자 항구에서 스위스를 거쳐 비밀리에 독일로 운반 공급했다. 더구나 전쟁기간 동안 애틀랜타의 코카콜라 본사에서 전쟁물자 조달이라는 명분으로 강제노역까지 시켰다. 1,500만 젊은이의 목숨을 희생시킨 이 전쟁에서 진짜 승자는 코카콜라였던 것이다.

그밖에도 지은이는 코카콜라의 원조가 프랑스 코르시카 섬에서 생산되던 코카 잎을 넣은 마리아니라는 포도주였다는 사실, 회사를 창립할 당시의 비사, '뉴 코크' 실패의 진짜 원인, 코카콜라가 베네수엘라의 콜라 시장의 70퍼센트를 장악하고 있던 펄시를 하루아침에 쫓아낸 이야기, 스위스의 비밀 금고 속에 숨겨져 있다는 코카콜라의 제조기법의 실체 등 코카콜라가 쌓아올렸던 성공신화를 무너뜨리는 폭로들을 쏟아낸다.

한때 코카콜라의 최고경영자였던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는 코카콜라의 경쟁상대는 탄산음료가 아닌 물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실제 미국 북부의 한 주에서는 코카콜라 소비량이 물 소비량을 앞질렀다고 한다. 13퍼센트가 설탕으로 이루어지고 쇠맛마저 녹여 버린다는 이 탄산음료가 물을 대체하는 음료수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코카콜라와 함께 꿈꾸고 있었던 것일까? **조훈**

20세기 가장 뛰어난 신학자의 올곧은 일침

김재혁 | 번역문학가, 시인, 고려대 교수

올해는 디트리히 본회퍼(1906~1945)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정확하게 그의 생일은 1906년 2월 4일이다. 그의 특이한 생의 역정은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의 실천적 지성의 삶으로서 가히 모범적이라고 할 만하다. 본회퍼는 신학이나 '고백교회', 그리고 정치적 저항을 위한 자신의 결단에 있어서 늘 곧은 길을 갔기 때문이다.

본회퍼의 생과 저술은 그가 처형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에도 늘 향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히틀러에 저항했으면서도 신념에 따른 그의 저항은 기존의 교리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강한 실천적 측면을 보였다. 그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신학자의 한 사람으로 존경받는다. 그가 테겔 수용소에서 쓴 편지들과 일기, 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약혼녀에게 쓴 사랑의 편지는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한다.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생을 시대사적 관점에서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재현한 새로운 전기 가 출간되었다. 저자는 역시 신학자인 페르디난트 슈링엔지펜(1929년생)이다. 그는 수많은 새로운 전기와 연구 성과들을 발판으로 본회퍼의 전기를 작성하였다. 이 전기의 강점은 그가 어린 시절의 중요한 시기를 본회퍼가 설립한 고백교회에서 보냈다는 것이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그가 본회퍼의 옥중서간을 출간하고, 1967년엔 처음으로 본회퍼의 대작 전기를 낸, 본회퍼의 친구였던 에버하르트 베틀게와 절친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도 이 책의 탄탄함을 더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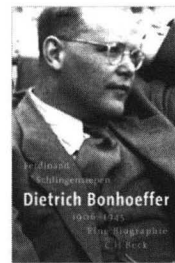
이 책은 본회퍼의 생과 신학에 대한 꼼꼼한 입문서로 읽을 수도 있지만, 독일 제3제국 치하에서 있었던 저항운동사로도 읽을 수 있다. 저자는 본회퍼가 공연연하게 행했던 나치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국방군의 카나리스 제독과 오스터 장군을 중심으로 한 히틀러 암살계획 참여에 이르기까지 본회퍼의 생의 역정을 세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성직자로

서 제3제국의 위협 아래 기회주의로 연명했던 많은 사람들의 현실타협적인 모습도 드러난다. 이것은 본회퍼가 종래의 신학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본회퍼는 감옥에 앉아 있을 때 신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고 그가 자신의 믿음까지 버린 것은 아니다.

이 책의 저자는 특히 나치 체제하에서의 신학자 본회퍼의 발전과정을 낱말이 추적하고 있다. 1932년 7월 체코에서 열린 한 국제학술대회에서 본회퍼는 이렇게 말한다. "히틀러 당의 승리는 독일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발전을 위해 예견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당시 26살밖에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 나치가 본격적으로 정권을 집권하기 전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명쾌한 진술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세상의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그의 독자적인 신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는 그에 대해 생각하면 신적인 것보다는 뭔가 인간적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신을 알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그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신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현실에 대한 인식 문제의 결합은 본회퍼의 신학에 애당초부터 정치적인 지향점을 부여한다. 그는 히틀러가 총통에 오르고 몇 주 뒤에 <유대인의 문제를 앞에 둔 교회>라는 글을 쓴다. 그는 당시 독일이 앞으로 문명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야만국으로 몰락할 것인지에 있어서 유대인 문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온 세상이 나치의 마법에 걸려 허덕내고 있을 때 그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다 큰 사람들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또 말할 수도 없는 언어로 습격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 수 없다"고.

독일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정의의 실천을 위해 앞장섰던 본회퍼는 나치의 패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1945년 4월 9일에 역모를 꾀한 혐의로 강제수용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한글**

German



원 제 《디트리히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저 자 페르디난트 슈링엔지펜 Ferdinand Schlingensiefen

출판사 C. H. 벅
출판년도 2005